

# 또또 또또또 글글..글글글... 돌아가는 대구경북 지회

글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56  
번째 인턴사원 정소영>인을 빙하며, 시금두너 우리 지회가 잘 돌아가  
는 이유 3가지를 펴 놓고사 하니, 모두들 눈 뽕긋 가슴 뽕긋 하시길.

글 정소영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인턴사원



강사단

## 하나 그녀들의 애정행각.

본 지회에는 4명의 여전사가 있다. 일을 하며 그녀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 했는데, 그것이 본 지회의 에너지원 인거 같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무실, 일에 대한 의견교류는 직책을 박문하고 잘 이루어짐. 허허허- 웃음소리에 껌뻍 넘어가는 상황 종종 연출된, "언니~ 그게 아니잖아!" 이런 류의 대화가 빈번함.

우리 지회에서 언니~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며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차모氏. 그녀에게는 "상담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담자"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듯하다.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싶다. 전화상담을 하고, 5분이 채 안되어 또다시 울리는 벨. "저는 괜찮은 겁니까..? 갑연될 확률이 몇 퍼센트지요..?" 동일인의 같은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하는 내담자 입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동요된 감정으로 상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가끔씩 그녀의 기발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우리들은 물론 지



전문인사교육



지회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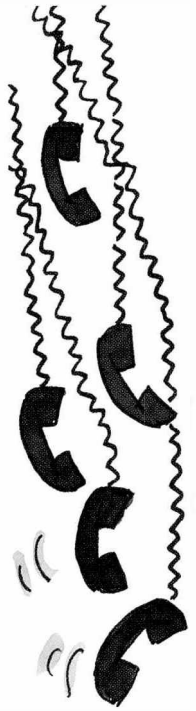
회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에게도 편안함과 웃음을 느끼게 된다. 사람을 사랑하고 만남에 기쁨을 느낀다는 그녀. 상담자로서도 조력자로서도 매력 만점이다! 상담업무에, 컴퓨터 사업에, 감염인 care에, 교육 총괄에 눈코 뜰새 없이 돌리고~돌리고~를 해야 하는 사업과장 김모氏. 김모氏가 맡은 업무는 대구경북 사업 총괄고, 이구석 저구석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함과 동시에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상근 자원봉사 시절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야근은 1월이 되어도 쭉쭉~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일 야근에 갑자기 몸이 아파와 나는 울음을 알각 쏟아 버렸다. 그렇게 퇴근한 후 김모氏로부터 전화가 왔다. “소영쌤~ 힘들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자신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 울기도 많이 했다고, 김모氏의 여러 가지 캐릭터 중 가장 강하게 느껴졌던 철두철미함이 무너졌다. 지회의 실 책임자로서 사업전반을 맡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취졌던 딱딱한 속에 혼자만의 인내가 있었던 거다. 밤이고 낮이고 감염인의 전화를 받으면 어디든 뛰쳐나가는 그녀를 통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그녀를 통해 내가 왜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 번은 열정쟁이 김회장님과 지회 식구들이 모두 한 차를 타고 워크숍을 간 적이 있었다. 대화도중 현재 논의되어야 할 안건이 나왔고, 의견을 개진하며, 현 상황에 대한 김모氏의 브리핑 아닌 브리핑이 이어졌다. 갑자기 열정쟁이 김회장님의 “그러면 안되지아~! 뭐~~~하는 거야~!” 숨길 수 없는 정열이 분출됐다. 순간 차안은 조용해졌고, 김회장님의 정열에 우리는 한 방 맞았다. 역시나 회장님은 여결 중에 여결. 그녀의 선의는 앞과 믿음대로 행해지고 그것이 그녀만의 카리스마로 나타나는 듯하다. 열정쟁이 회장님께서 보이는 본은 우리에게 앞과 행함을 함께 가져오도록 하는 것 같다.

빠질 수 없는 사무실의 분위기 메이커 인권·후원팀의 이모氏. 컴퓨터에 계신 한 감염인의 재정적인 분체와 안타까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벽에 부딪히며 낙담하고, 감염인의 하고자하는 욕구가 줄어든 것 같아 속상해 하던 그녀. 차츰 일이 다듬어져 가고 감염인의 신뢰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너무 잘 됐다며 기뻐하고 감염인을 안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게 아닌가! 무뎠던 이모氏의 애정행각은 특특- 던지는 말 속에 묻어두고, 아주 한 번씩 걸음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모氏의 눈물. 이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대구경북의 힘은 바로 이러한 애정행각에 있다. 말 그대로 일과 사람을 향한 애정에 있고, 대화와 수용으로 서로에게 묻어있는 색깔들을 맞추어 가는 것에 있었다.



청도건강축제  
외국인과 함께



## 둘 무엇을 하나요? \_ Mr. Park.

우리의 청일점인 미스터 박은 심터에 계신다. 전진하는 협회에 미치는 미스터 박의 에너지는 쌀쌀한 11월 심터소풍갔을 때 알아 버렸다. 가벼운 마음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팔공산. 인이 미스터 박과 심터 식구들과 함께 제대로 대화하며 꽤 긴 시간을 보낸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사진도 찍고, 때 이른 눈을 맞은 산길을 걷는 중에 심터 식구들에게 있어 친구같은 미스터 박을 보았고, 아버지같은 미스터 박을 보았던 것이다. 식구들을 보호하며 지지해주며 심터에서만 함께 하는 그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함께 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스스럼없는 식구들과의 대화, 행인의 장갑을 식구들에게 내미는 손, 입고 있던 점퍼까지 벗어주려는 모습, 오손도손 우리들의 추억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 그의 애정행각 역시 4명의 여전사 못지않았다.

## 셋 에이즈예방교육 전문 사절단

본 지회가 타 지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 에이즈예방교육 전문 사절단의 규모가 약간~ 크다는 것이다. 본인과의 접촉이라곤 월 2회 있는 스테디, 월례회, 홍보캠페인에서 뵈는 것이 전부였는데, 어찌 얽이어 사절단과의 관계가 옆집 언니, 오빠 수준이다. 이 사절단은 본 지회의 핵 중에도 핵이다. 월 2회 있는 스테디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면서 앞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분들이시며, 전문성을 쌓기 위해 사흘이 멀다하고 서울로 타지방으로 교육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 에이즈예방교육 하러 산 넘고 물 건너 대구에서 왕복 6시간이 걸려 찾아가 2시간 교육하고 고요히 돌아오는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다. 그저 자신의 기쁨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어찌 이런 선생님들께 감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청도건강축제

어찌면 시시콜콜할 지도 모르는 이 경험들은 내게 이곳의 일과 사람이 어떤 류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처리해야 함과 동시에 딱딱한 적막은 없고, 이해와 대화가 공존하는 곳이란 느낌이 강하다. 본 지회는 본부나 타 지회와 크게 다른 사업을 하진 않는다. VCT상담실을 운영하고, 심터와 함께하고, 감염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 뛰고, 에이즈예방 교육과 홍보를 하고. 본 지회의 강점을 3가지로 나열해 보았지만, 결국 이 3가지는 사람에 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어우러지지 못 하고, 그 마음이 근본에 있지 못 하면 그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에 떠 있는 종이배에 불과할 것이다. 일과 사람에 대한 열정! 근본이 된 사람! 찬으로 식상하고 어디에든 나뉘고는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 한 것은 “열정”과 “된 사람”이란, 전진하는 곳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핵심이라는 것이다.